

다니엘서 - 백칠십번째

영혼의 성채: 예언적 맥락에서의 신적 즉위와 변화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3-31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식별하는 열쇠는 그 왕국의 머리, 곧 수도인 "요새"이다. 인간의 성전은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진다. 머리는 더 높은 본성이며, 몸은 더 낮은 본성이다. 1844년에 끝난 "일곱 때"는 그 후 유다의 머리였던 예루살렘과 결합되어야 했다. 유다의 머리였던 예루살렘의 머리인 왕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해 있었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나타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표상된다. 마음은 더 높은 본성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머리"이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여성적 유발의 환상을 볼 때, 그들은 둘째 아담이시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때 그들이 타락하여 창조의 질서를 뒤바꾼 첫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는, 그들이 태어날 때 자기 선택 없이 받았던 그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자기 선택으로 받는 것이다. 그들의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때 한 마음이 되어, 둘이 함께 하늘에 있는 보좌에 거한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설계된, 성전 안의 특정한 처소가 있다.

그곳은 북왕국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낮은 본성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남왕국으로 상징되는 곳,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성품을 두기로 택하신 곳에 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유다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은 머리와 같지만, 그 수도의 머리는 왕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로 택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두실 곳으로도 택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보좌를 두셨다. 남왕국은 인간의 높은 본성을 대표하지만, 또한 왕을 위한 특별한 보좌실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여사는 그곳을 영혼의 "성채"라고 부른다. 정의에 따르면 성채는 요새다.

온 마음은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삶과 품성에 성화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요구에 완전히 자신을 항복시키는 통회의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고, 그 결과 진리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들의 삶에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영향이 삶과 품성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목자장 아래 목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양 무리의 목자장과 협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는 일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부르신다. 그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실천적 경건에서 드러나는 진리의 능력에 대하여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강권하는 증언이 필요하다. 구주의 사랑이 영혼에 자리하면,

일꾼들이 멸망해 가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진리가 영혼의 요새를 차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때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4년 10월 9일.

“영혼의 성채”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즉위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지며,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육체는 더 낮은 본성이요, 곧 북방 왕국이다. 이것이 북방 왕국의 예언이 오직 1798년에까지만 이르는 이유이다. 더 낮은 본성은 신성과 결합될 수 없으며, 재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야 한다. “머리”인 예루살렘을 포함하였고, 또한 성소라는 “머리”를 포함하였던 남방 왕국은 1844년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그것이 더 높은 본성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며, 그 본성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지성소의 성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 그 결합과 그 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인간 성전의 성채 안이다. 11장 10절은 머리를 요새로 정의하지만, 그 진리는 오직 이사야의 증언으로만 확립되며, 그 증언은 요새(성채)에 관한 진리가 그것의 외적 적용과 내적 적용 가운데 이해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순수하고 순전한 진리가 부족하여 멸망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소박해 보이는 겉모습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성령으로 소생된 마음은 이 말씀들의 가치를 분별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거룩한 안약이 발라질 때, 비록 그것들이 표면 아래에 묻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귀한 진리의 보석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는 섬세하고 세련되며 숭고하다. 진리가 품성을 형성할 때, 영혼은 그 신성한 영향 아래에서 자란다. 매일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로 만든다. 마음에 간직된 진리는 차갑고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능력이다.

진리는 거룩하며 신성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 안에는 기쁨의 충만이 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앞세우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여 순전한 진리가 존재의 성채를 차지한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진리의 생기를 불어넣는 영향 아래 살며 일하는 사람의 삶에는 고결함이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9년 2월 14일.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역사에 대한 그 이상은 제2절에서 시작되며, 여섯째이자 가장 부유한 왕이 제11절부터 제15절에 나타나는 머리, 곧 러시아와 일치할 때 그러하다. 그 역사 속에서 여섯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가 될 것이며,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결합하여,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령 때 제16절에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음행을 완결할 때 그가 통치할 것이다.

그때 들어 올려질 기치는 삼 일 반 동안, 곧 다니엘 10장에서는 21일 동안, 좌절을 겪고 죽게 될 것이다. 다니엘을 위한 21일의 애통이 끝나는 때, 즉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죽은 마른 뼈들인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는 삼 일 반이 끝나는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다. 그 과정은 다니엘 10장에서 세 단계로 나타난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강 가에 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파스의 순금 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보였다. 그의 몸은 베릴과 같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불의 등불 같고, 팔과 발은 닦아 빛낸 놋과 같은 빛깔이었고,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다.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다. 이러므로 나는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아무 힘도 남지 않았으니, 내 얼굴빛이 변하여 수척해졌고, 힘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졌다. 보라, 한 손이 내게 닿아, 나로 하여금 무릎과 손바닥을 짚고 일어나게 하였다.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달으라. 그리고 똑바로 서라. 이제 내가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니, 그가 이 말을 내게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네가 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자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제 내가 네 백성에게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왔으니, 이 환상은 아직 여러 날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서 10:4-14.

스물한 날의 애통이 끝날 무렵,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은 두 부류를 갈라놓고,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죽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한다." 이에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잠을 자며 쉬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요한복음 11:11-14.

그때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다니엘에게 손을 대어, 다니엘이 죽어 있었던(잠들어 있었던) 동안 벌어지고 있던 정치적 투쟁에 대해 알려 주고, 이제 방금 다니엘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그 환상의 해석을 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두 번째로 손을 대실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씀을 내게 하셨을 때, 나는 얼굴을 땅을 향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보라, 사람의 모습과 같은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서 있는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나를 덮쳐 내게 기력이 남지 않았나이다. 주님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나이까?

저는 곧바로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0:15-17.

이는 에스겔서 37장의 첫 번째 예언과 상응한다.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에게 에스겔이 전하라고 명령받은 두 가지 예언 가운데, 첫 번째는 몸을 형성하지만 그들에게는 호흡이 없고 강대한 군대의 힘도 없다. 몸들이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호흡을 받아 강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은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에서다. 그리고 다니엘이 두 번째로 만짐을 받았을 때, “내게는 힘이 남아 있지 않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 있지 않다.” 그다음 다니엘은 다시 만짐을 받는데, 이는 전체로는 세 번째요, 가브리엘에게서는 두 번째였다.

그때 다시 사람의 형상 같은 자가 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강하게 하며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 10:18, 19.

다니엘의 세 번째 접촉은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으로, 그 예언은 그들의 몸을 일으켜 강력한 군대처럼 발로 서게 한다. 그의 예언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을 향한 것으로, 그들은 다니엘도 그러했듯 애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바람을 향하여 예언하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나는 그가 명하신 대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발로 일어서니, 매우 큰 군대였다. 그가 또 내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끊어져 버렸다, 하였다. 에스겔 37:9-11.

주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증언이 그들이 죽었고, 소망이 없으며, 끊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2020년 7월 18일의 실패한 예언에 실망하여,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애통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은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아,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겠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2-14.

대천사 미가엘이신 주께서 그들의 무덤을 여시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부활하여 성령을 받고 일어서는데, 이는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에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일어서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과 같다.

그리고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요한계시록 11:11.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묘사되며, 모세는 또한 대천사의 음성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훼방하는 고발을 감히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유다서 1:9.

군주이자 대천사인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서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준 분이며, 남녀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의 음성이다.

주께서 친히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6

다니엘의 세 번의 접촉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다니엘 10장에서 라오디게아의 형상에서 빌라델비아의
형상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그 이상은 11장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로 표상된다. 그 이상은
에스겔에 의해 셋째 화의 이슬람의 이상으로 표상된다. 2014년에 러시아는 두 번째 대리
전쟁을 시작하였다. 2015년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시작하였다.

2020년, 공화당의 뿔을 대표하던 그 대통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각성"한 무신론적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고, 같은 해에 라오디게아 개신교의 뿔도 죽임을 당했다. 2023년, 두
뿔이 모두 다시 살아나 일곱에 속한 여덟째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하나는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가 결합되면서 짐승의 정치적 형상으로 전환하고, 다른 하나는 라오디게아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 둘 다 높여질
것이다.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 일곱째 왕국을 로마의 음녀에게 넘겨주는 열
왕들의 수장이 되고, 다른 하나는 기치로 높여질 것이다.

이 두 전환을 일으키는 이상은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 사이에 전개되는
역사이다. 다니엘서 11장 11절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맥락에서
특별히 지목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성경의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배워
실천해야 할 교훈을 드러내는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깊이 흡수하고 품성으로 그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공부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분의 탁월하심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에서도
우리의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이른바 과학이라 불리는 많은 것은 인간의
고안으로 만든 요리와 같아 불순물이 섞인 음식이니, 그것은 참된 만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고 고갈되지 않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속에 드러내신 많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둡게 보인다. 진리의 보석들이 인간의
지혜와 전통의 잡동사니 아래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보화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황금 같은 교훈들을 깨달을 때까지 열성과 인내로 그것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그것을 받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준비시켜

하늘의 왕의 자녀요 왕가의 일원이 되게 하려고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는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 책들을 연구하는 일을 대신해야 한다. 그 말씀의 살아 있는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 배어들면,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며, 그 신성한 가르침만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시험이 모든 영혼에게 임할 때 배도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배신자요, 경솔하고 거만하며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자로 드러나, 진리에서 돌아서 믿음을 파선시킬 것이다. 왜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깊이 파서 기초를 견고히 하지 않았다.

주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원망하며 길이 너무 좁아졌다고 여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겨졌던 몇몇 사람이, 분명한 진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이를 못마땅해하여 더 이상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는다. 이와 같이 이 피상적인 연구자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증언, 제6권, 132.